

광우 스님은 당시로는 드물게 이웃종교인들과도 마음을 열고 교류했다. 사찰에서 수녀님들과의 기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명성 스님, 가운데 광우 스님)



생전 상좌, 손상좌 스님들과 행복하게 웃고있는 광우 스님의 모습. 말년에 몸이 편찮아도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스님은 삶 자체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광우 스님은 부산 소림사에서 1956년부터 1966년까지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비구니스님이 법상에 오르는 일은 드물었다.

대중과 고락 함께한 법화행자

광우 스님 감로법문들

우리를 바른길로 안내하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만큼이나 큰 복이다. 비구니 명사 태허당 광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삶의 길을 일러준 훌륭한 선지식이셨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스님이 삶 속에서 보여준 행지(行止)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비록 지면을 통해 스님의 행지를 전할 순 없지만 평소 남긴 가르침이 다시 법향으로 전해지길 기원하며 정리해본다. **노덕현 기자**

행이 있으되 믿지 않아 교만스레 되지 말고, 신이 있으되 행 없어 어리석지 말고 육바라밀의 지침을 잘 받들어 수행해 나가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넉넉한 바람처럼 왕래하는 운수가 되리라. 마음의 끈을 다 풀고 하늘을 오르는 연처럼 이 속박된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자 **〈신행불교〉 中**

창밖의 빈 나뭇가지를 응시하며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만지고 내 행색을 훑어본다. 수없이 법을 말해 오면서 얼마나 법답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추운 사람들의 추위를 헤아려 보았던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던가. 이어지는 물음에 뭇중생을 향한 참회의 합장을 올린다. **〈신행불교〉 中**

불교수행자는 삼독을 끊고 그 본성을 맑게 해야 합니다. 최후의 목적은 참다운 열반을 얻는 것이지요.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깝게 열반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늙고 부서진 수레지만 가야할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법대로살아라〉 中**

출가수행자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대행자라 할 수 있지요. 스님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귀의를 받아야 하는 삼보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행자가 수행자 답지 못하면 그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이 반듯하게 잘해야 합니다. 행동은 수행자 답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왜 내가 출가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요. **〈한국의대종사〉 中**

희견보살은 자기 몸을 소신공양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에게 희견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요. 아마도 포교하는 법사가 돼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바로 마하파자파티 같은 비구니 대법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나의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 서원만은 그렇게 세웠지요. 그래서 정각사를 짓고 포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의서원 나의신행〉 中**

한국불교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치마불교라는 여성폄하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성의 힘을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성 스스로가 '부처님의 제자' '석가의 딸'이라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성불자도 매우 적극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사회 봉사에 열심입니다.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고양시켜 나간다면 오명이 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中**



추도사

만월 빛처럼 후학 등불 될 것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태허당(太虛堂) 광우(光雨)스님!

사바에 홀연히 오시어 각별한 신심과 원력으로 산하대지를 흔들더니, 이제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모든 불자들의 사표(師表)이며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圓寂)에 드시니, 스님의 후학 제자들과 수많은 인연들은 그 슬픔을 가누기 어렵기만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답의 길을 헤치며 위법망구의 삶을 살았고 인천의 스승으로서 표상을 보이셨으니,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려 애썼건만 스님의 덕행은 후대에 길이 감화를 미칠 것입니다. 전법과 수행에 전념하시면서도 인재 양성에 헌신하셨으니, 아무리 감추려 하셨어도 스님의 원력은 망월산 등성이 위에 뜬 만월의 빛처럼 후학들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구니스님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여성 인권 신장과 불교 발전에 헌신하신 공덕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을 포함해 8명의 원로 비구니가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명사' 법계를 서품받은 것은 스님의 헌신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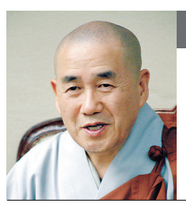
또한, 스님께서는 10년 동안 법화경 산림법회를 열어 불교의 대중화와 인재양성에 진력해 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는 실천의 종교이며 법당 불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를 키우는 불사이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평소 말씀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수행, 종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백만원력 결집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태허당 광우스님이시여! 스님께서 걸으셨던 수행과 전법, 이타(利他)가 겸비된 원력행은 후학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결식을 봉행하며 스님을 기억하는 인연들마다 스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추모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여여한 인연일 뿐입니다. 흔적 없이 다시 오셔서 불자들의 아름다운 행원(行願)에 미소로 화답해 주소서.



법 어

보현행원 이루소서

종범 스님 前 중앙승가대 총장

광우스님! 광우스님!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십니까!
여여히 오셨다가 여여히 가십니까!
밤낮이 없는 밝은 일광은 고금이 없지만
밤의 어두운 느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생멸이 적멸인 대승신심과
무주상 수행의 보살원력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미래세에도 일념신심과 광대원력으로
무생무멸하고 무장무애한
불가사의 해탈경계에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광수공양하고 보개회향하여
보현행원을 이루십시오!
광우스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바람은 떠날 때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라 하셨지요
가실 때도 자취 없이 가시듯이
오실 때도 소리 없이 오십시오!
다시 이 사바세계에 속히 오셔서
보살원력을 이루어 주십시오!
太虛堂 光雨明師 覺靈이시여!



영결사

비구니계의 큰 사표

육문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법화행자로서 늘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머금으시며 한 점의 차별심도 없이 모든 사부대중을 따뜻하게 제접해 주셨던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황망하고 공허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사표로서 우뚝 솟은 모습으로 한국불교와 청정도량 정각사를 가꾸고 지켜주신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홀연히 떠나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열반적정의 법문 입니다. 그렇듯 자비롭고 인자하신 스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희들로서는 담담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이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법통을 외호하시며 비구니계를 대표하여 종단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원로 큰스님들, 학계의 고명한 석학들, 비중 있는 신도들이 항상 스님과 교유하며 불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진한 것은 평소 스님께서 보여주신 덕화가 얼마나 크고 넓었던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의 설립과 발전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스님의 모습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셔서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시고, 회관 건립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그 열정은 언제까지나 저희 후학들에게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스님께서는 사바의 인연을 접으시고 열반락의 세계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또 다른 원력이 시작되는 길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의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은 그 어떤 언설로도 채울 길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한 점의 걸림도 없는 수행력으로 오고, 가는 것에 자유자재하신 태허당 광우 큰스님. 열반락을 충분히 만끽하시거든 부디 다시 원통자재하신 모습으로 저희들 곁으로 오시어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조 사

문서포교 견인차

호진 스님 前 동국대 교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날엔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역시 위안이기도 하고 대안이기도 합니다. 겁(劫)을 두고 생과 사를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진데 이번의 이 삶은 수 많은 삶 가운데 하나의 삶일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감내해야할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번 생을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慧자 峰자 큰 스님을 아버지 겸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어머님을 사숙 겸 도반으로 하셨습니다. 일찍이 출가하셔서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 수행과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도시의 포교 도량에서 긴 세월동안 역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배움과 가르침을 함께 하셨습니다.

일찍이 서울 변두리에 정각사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그곳을 현대 한국불교학의 요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 한국불교학계의 큰 학자들이 대부분 정각사 법당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불교학을 그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서 포교를 위해서도 초창기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후진들을 키우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아 적지 않은 학생스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구니계를 위해서는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했지만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비구니회를 육성하고 회관을 세우는데 주축이 되어 많은 노력을 바쳤습니다. 스님의 일생을 기록한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를 다시 읽으면서 스님께서 참으로 많은 공부와 일과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생전에 베푸신 가르침과 보여주신 실천, 더불어 이룩하신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 남아 스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조 사

여성불자 위상 진작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태허당 광우 큰스님, 평생 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신 스님께서 이렇게 홀연히 열반에 드시니,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저는 그저 아득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스님께서는 저보다 대여섯 살이나 연배이시면서도 언제나 도반으로, 단짝으로 대하시며 어려운 일을 상의하시는 등 격의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평생 크게 의지했던 선배이자 도반이셨던 스님께서 이렇게 훌쩍 떠나가시니, 항상 비구니가 가야 할 길과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셨던 큰 스승의 부재를 후학들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우스님, 생전 스님께서는 늘 현대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비행이 필요한 시대라며 비구와 비구니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구든 비구니든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전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비구니와 여성불자들의 위상을 크게 진작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님께서 열반적정의 크나큰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대법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후학들은 이 자리를 평소 스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스님의 거룩한 행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곳 망월산 자락 정각사는 우리시대 걸출한 비구니 대 스승을 배출한 신흥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태허당 광우 큰스님. 지금 이 순간 스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 미혹을 물러나게 하는 천둥 같은 가르침, 관음의 화현이라고 해야 마땅할 보살행 등 스님의 일생을 통해 경영해보이신 삶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 너무 오래 열반락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저희들 곁으로 원생으로 돌아오셔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후학과 중생들에게 다시금 복혜의 대 법비를 내려 주십시오.